

뉴제주 운동 우수사례에 대한 소견

김 태 윤 · 한 승철(제주발전연구원)

I. 들어가며

범도민 사회개혁실천운동인 뉴제주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닷을 올리고 출발할 때만해도 관이 주도하여 민간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했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지역 곳곳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새바람은 성공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협상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제주지역 산업전반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잘살기 운동 같은 사례는 그야말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건설, 선진형 사회체계 구축, 다원형 세계시민 양성 등의 구호도 내걸렸다. 그리고 이제 뉴제주 운동은 사회개혁실천운동과 잘살기 운동을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관 주도 운동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으나 도민들 사이에서 잘살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을 하는 등의 새로운 움직임과 의식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뉴제주 운동이 범도민 운동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2007 뉴제주 운동 민간부문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모두 31개 단체가 응모하였고 1차·2차 심사를 거쳐 모두 10개의 우수사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발표대회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식변화와 잘살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을가꾸기에서부터 특산물을 이용한 경영사업, 명품·명소만들기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고, 시민운동의 업그레이드 본보기도 주목을 받았다. 이에 뉴제주 운동의 1년 성과와 우수사례를 정리해본다.

II. 우수사례

▲ 추자도 참굴비 명품브랜드화 사업

주민 90% 이상이 종사하고, 멸치 조기 삼치 등 어종이 풍부한 추자도는 작년 2월 뉴제주 운동에 대한 면사무소 직원 워크숍을 계기로 새로운 소득증대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장단과 자생단체, 수협 등이 이에

합세하고, 마침내 참굴비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전개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추자도가 직접 실행해보자는 뜻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은 추자도에서 어획되는 참조기가 90% 이상 외부로 반출되고, 나머지 10%만 품질 표준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개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추자도는 참굴비 육성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선진지를 견학하여 가공시설 처리라인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우리홈쇼핑을 방문, 판매망을 개척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전개했고, 각종 축제 행사마다 체험관을 운영하여 추자도 참굴비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를 높여나갔다.



그 결과, 호주 등으로의 해외수출 길도 열리고, 2006년 4백톤에 60억원어치, 2007년 6백톤에 1백억원어치로 판매금액도 크게 늘었다. 앞으로 2011년에는 6천톤에 1천억 매출액을 올려 국내 최고의 명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서귀포시 여성의 힘, 'New-woman 운동'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뉴제주운동 성공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뉴우먼

운동의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4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4대 실천과제는 경조사 문화개선, 쓰레기 문화정착, 친절문화 조성, 신뢰문화 조성 등이다.

경조사 답례품 문화사업은 쌓이는 답례품 때문에 경제유통이 저해되고 다량의 세제사용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답례품을 재래시장 소액상품권으로 바꿔나갔다.

올바른 쓰레기 문화 조성 사업으로는 클린아파트 지정운영,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제작 보급, 쓰레기 자원화 교육 등 시민 참여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을 도모하고, 친절·신뢰문화 조성은 신뢰·친절가게 선정 10개소, 반딧불이 학당 2기 운영 및 범도민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90년 중반 서귀포시 여성운동의 주인공이던 서귀포여성단체협의회가 주도하는 뉴우먼 운동은 앞으로 여성주도의 성공적 사회의식 개혁운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패션-쇼핑의 거리 조성 문화축제

패션 쇼핑의 거리 문화축제 시작은 제주시 일도1동의 이미지 찾기에서 비롯되었다. 주민 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들의 연석회의 및 설

문조사 결과, 산지천 명소 가꾸기(20%) 보다 지지도가 높은 패션-쇼핑의 거리 조성(73%)을 일도1동 이미지 찾기로 결정되었다.

칠성로는 제주의 1번지 제주의 명동으로 불리던 곳.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가의 침체에 빠진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인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패션-쇼핑의 거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편리하고 축제가 있는 칠성통 쇼핑거리, 패션과 쇼핑의 거리를 만들어 제주 제일의 관광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 벽화로 보는 문화의 거리 남문골 만들기

삼성혈 오현단 제주성지가 있는 남문골은 역사문화의 중심지다. 이도1동은 남문로구간을 비롯 제주성지, 광양초등학교, 이도1동 주민센터 등에 벽화 28개소, 쌈지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 전시관 1개소 등을 정비했다. 벽화가 그려지고 예술품이 곳곳에 설치된 것이다. 이러한 변신은 지역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행정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가 주도하여 주민과 함께 남문골 벽화 그리기를 비롯해 폐가 및 공가 주차장화, 입체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동네가 탄생하였다.



▲ 울타리 없는 APT 더불어 함께 사는 일도2동

일도신천지 1차아파트는 일도2동에 위치한 10개동 490여 가구의 규모다.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아파트 주위에 둘러쳐진 울타리는 멀리 돌아가야 하거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울타리 허물기 사업을 결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특성화사업 최우수로 선정되어 4천만원을 확보하여 울타리 420m를 철거하였다. 남은 공간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가 마련되었다. 담장 주변에 휴식녹지와 생태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입주민에게 살고 싶은 아



파트가 되었고, 무엇보다 주민간의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가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 되었다.

▲꿈과 희망이 흐르는 동백마을 만들기

남원읍 신흥2리는 300년 역사의 전통이 있는 마을로 지방문화재 제27호인 동백나무 군락지를 가지고 있다. 동백나무 마을 숲과 감귤, 4.3의 역경을 이겨낸 슬기와 정신력은 신흥2리의 정체성이었다.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백꽃이 어우러진 평화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동백마을 선포식을 통해 리민화합 축제를 개최하고, 동백 숲 탐방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여절악 진입로 가로수 조성, 동백마을이야기 지도 제작 등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어울림상을 수상했다. 동백마을 만들기는 설촌 3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올 3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Ⅲ. 뉴제주 운동의 의의와 과제

뉴제주 운동은 세 가지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자존이다.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는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정신으로, 제주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존의 가치이다. 둘째는 개방이다. 사람·상품·자본의 이

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이다. 우리에게는 대선단을 이끌고 거친 바다를 누빈 해양유목민(Ocean Nomad) 탐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셋째는 상생이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 공영하는 세계 평화의 섬을 추진하기 위한 정신이다. 탐라건국신화에 활을 쏘아 서로의 영역을 정하고, 칠성대를 세워 부족이 연맹하는 삼도 분립한 연맹공동체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요약하면 자존·개방·상생은 제주의 21세기 화두다. 다시 말해 뉴제주 운동은 제주의 21세기 화두를 쫓아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는 제주정신계승 및 주인의식 함양 운동,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강화 운동, 다양한 문화와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의식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뉴제주 운동 2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공직자 의식개혁 및 직장 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중심으로 공직자 뉴제주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뉴제주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공직자가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변할 경우엔 민간이 주도하는 뉴제주 운동이 진정한 제주사회의 새바람으로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행정을 벗어나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가 잘사는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비전과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새로운 변화의 바람, 뉴제주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